

자살 7만명, 심리부검추진... '헬조선' 원인부터 밝힌다

[자살예방계획]

정부가 최근 5년간(2012~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명 전원을 '심리부검' 한다.

하루 평균 36명(연 1만3092명)의 자살사망자가 나오는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예방정책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31.7명)의 46%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 인구 10만명당 2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진입한 이래 한번도 자리에서 내려온 일이 없다. 2011년에는 31.7명으로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자살률은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 2016년 기준 25.6명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OECD 35개국 평균(12.1명·2015년)과도 2배 이상 격차다. 반면 자살사망자의 기대소득 손실만 연간 6조5000억원(2012년)이며, 자살유가족의 고통과 자살 고위험 등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3째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자살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 "복합적인 자살원인, 해명" ... 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복지부는 우선 올해와 내년 자살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부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리부검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고인의 사망 전 일정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양상 및 변화, 상태를 재구성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역사

회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 복지부는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경제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의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내년 말에 발표돼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28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 등 연령·계층별, 지

역별 통계 등 자료 확보·분석을 통해 자살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 행동계획을 전담계획 추진을 전담하게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국민생명지킴이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로 이행실태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도 매년 시·도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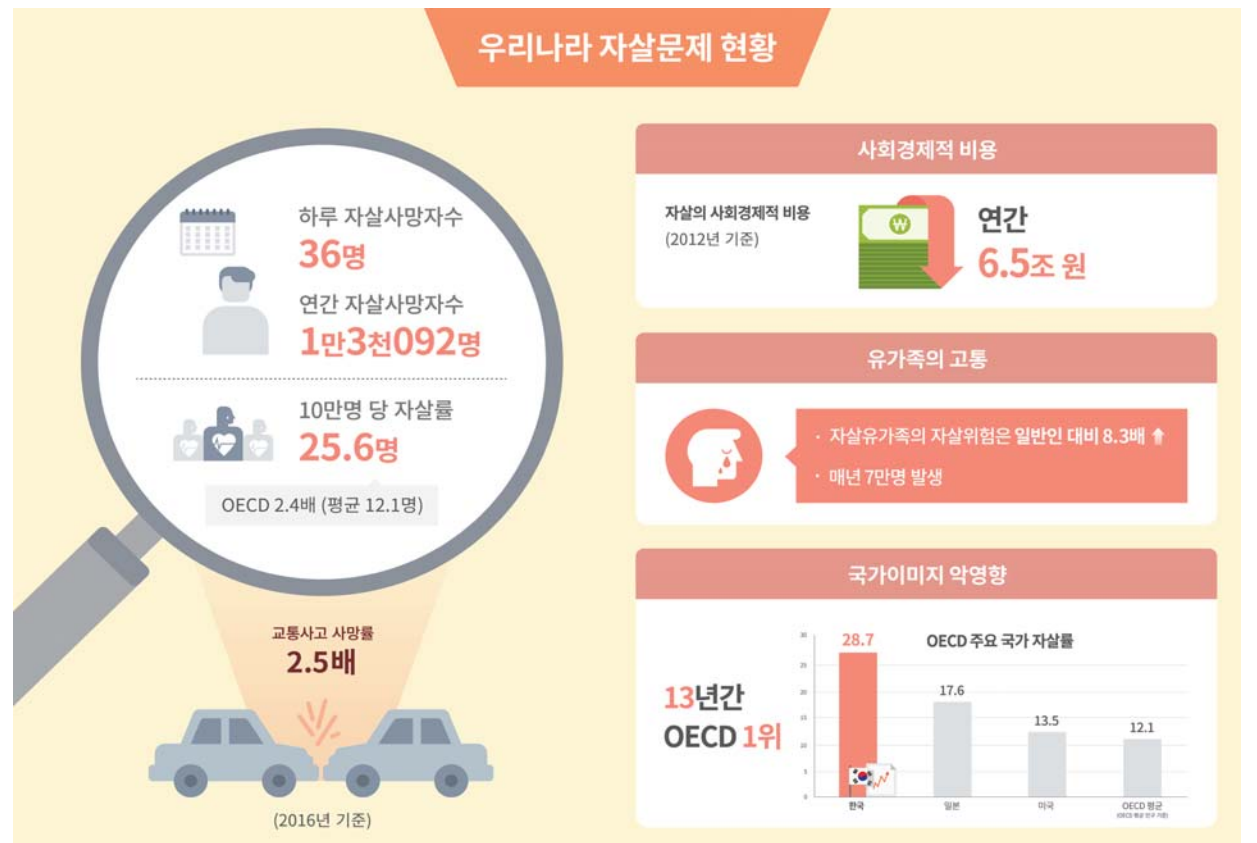
◇감정노동자·학생 등 고위험군에 전사회적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고위험 계층에 대한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도 추진된다.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인력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민간활동자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 양성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경계수위를 높인다.

특히 사업장, 교육시설, 의료기관 등에 각각 자살예방 과제가 부여됐다.

사업장은 자살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도 실직자와 감정노동자, 장시간노동 등 취약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등 고위험 계층에 대한 자살예방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자 자살예방상담,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실태 점검, 자살 발생 사업장 근로감도 고간 조사 등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병원 응급실을 기반으로 자살 시도 생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올해 52개소로, 전년(42개) 대비 확대한다. 우울증 검진과 스크리닝 확대와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활성화와 연예인 등 유명인 자살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노인·군인과 초·중등학생·학교밖청소년 등에 대한 연령별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청소년은 물론 선성남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향후 정부는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강화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6월 공개되는 정신건강리

스텝(MHIS)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발굴된 대상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부채부담·과산 등 위기대응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강화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6월 공개되는 정신건강리

OECD '자살률 1위 탈피' 심리부검서 출발...실효성은?

핀란드는 20세기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돼 있다. 핀란드의 자살사망률은 한 때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당 30.2명(1990년)으로, 1965년 대비 3배로 높아지기도 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관계단절과 소외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 결과다.

하지만 핀란드는 1986년 국립건강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면서, 불명예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4년 14.1명으로 5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배터

(baton)을 이어 받아 지난 2008년(22.6명) 이래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핀란드가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심리부검'의 역할이 매우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변화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검토해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살사망 당시 경제상황은 어땠는지, 고용 상태 또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나 동거인 등

혼인·가족관계, 질병 상태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도 병행하게 된다.

정부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심리부검을 넣은 것은 이 같은 핀란드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최근 5년간(2012~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명과 유가족을 상대로 심리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심리부검이 장밋빛 비전을 약속하는 것만은 아니다. 핀란드의 경우 1987년 1년간 자

살사망자 1366명에 대해 전문가 5만명을 동시에 투입해 실시됐다. 당시 핀란드 전체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우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반면, 우리의 경우 핀란드보다 70배 많은 7만명을 대상으로

특히 일본의 경우 자살대책기본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 전개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자살예방 예산은 2016년 7927억원으로 우리

리의 경우 매년 계절음하던 자살 예방예산 확충을 위한 첫 발을 이제 막 뒀다. 올해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은 전년 99억원 대비 62.3% 큰폭으로 증액됐지만 여전히 이웃나라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심리부검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는 약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이 안 됐지만 새 정부는 자살문제를 국가의 주요 과제로 삼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22년 17.0명까지 낮추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핀란드 심리부검 기반한 정책수립으로 자살률 50% ↓
박능후 "2022년 자살률 17명...구체적 목표 달성 약속"

심리부검이 추진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28억원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

나라 올해 자살 예방 예산 162억원의 약 50%이다.

일본은 자살예방 전담조직 구성 및 적극적인 투자로 자살률을 2003년 27.0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30% 이상 낮추는 성과를 냈다. 우

뉴스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